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기도서 P. 317 C해
1독 (창 세 14장18-20절)
2독 (고린전 11장23-26절)
복음 (루 까 9장 11b-17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정 승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강 료□



음 복(飮福)

박 창 신 신부

주변의 많은 분들이 상제(上帝)와 선조께 제사를 봉헌합니다. 그 분들을 위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향을 피우고 봉헌함으로써 기억하고 있는 분이 제사상에 현존하신다고 믿고 그분과 이야기 합니다. 그 후에 감사기도를 하고, 함께 제사에 참여한 모든 이가 같이 음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축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죽으시던 전날 밤 우리에게 귀중한 음식을 주셨고 십자가상에서 아파계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도 그 예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참 제물로 성부께 바치십니다.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되는 순간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성체와 성혈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며 우리의 음식입니다.

요한복음의 자기 계시 정식(自己啓示定式 요한6, 35-48;10, 7;11, 25)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신 생존시에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요한 6, 35-48). 또 “나는 살아 있는 빵 입니다”(요한6, 51)하고 미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마르코 4, 22-26)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과 성부의 함께 현존(요한 6, 56)하게 되었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고린토교회는 그리스도의 빵을 받아 먹으며 인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굳게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자기 계시 정식과 유언과 초대교회의 고백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업적을 고개숙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체로써 우리가 풍성한 생명으로 성장되어 간다는 진리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영성체를 게을리하는 신자들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확실히 음복으로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성장과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음복함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상제와 선조께 생사화복과 기념과 감사를 드리듯 우리의 진실한 제사인 미사를 완전하게 하려면 온 교회의 신자들이 전부 음복을 해야만 합니다. 완전한 미사는 모든 신자들이 전부 음복함으로써 온 공동체가 하나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파계 찬미와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며 주님의 부활 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음복하는 신자가 적은 비유일 수록 참된 제사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김계 천주교회 주임신부)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 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아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

지금도 육중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저항 시인 김 지하 (프란치스코) 형제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 살과 피를 생명으로 주신 위대한 사랑은, 바로 우리 모두가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밥을 나누어 사랑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밥을 나누어 먹는 일은 바로 하느님을 함께 누리는 천상잔치의 서곡입니다.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밥을 나누어 먹는 일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註. 윗글은 安東교구에서 발행하는 공소사목 제201호에서 옮겼습니다.)

숲 정 이 산책



좌측 쏟아지는
곳에서 마시라



기도회 취지 해설

그동안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는 "3·1사건" 구속자들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23일 기도회를 제기로 기도회 명칭을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회"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우리가 3·1사건 복역자들과 그밖에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인사 및 학생들에 대해 행여라도 체념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 평화 위원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양심을 표현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양심 수인"들을 되도록 빨리 구출하기 위해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개최하여 온 근본 정신도 옥중에 있는 성직자와 크리스찬 인사들만 구출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세상 사람들을 하느님의 같은 자녀로 자각케 하여 서로 사랑과 평화를 나누도록 세신시키는 누룩의 역할, 영혼의 역할을 다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회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복음화 운동입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밝혔듯이 현대 세계는 신속하고도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회는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 사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모든 사람과 특히 크리스찬들이 사회 현실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모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은 시국 문제와 부조리에 대한 거론을 귀찮게 생각하여 되도록 이를 막으려 들고, 밑바닥에 눌러서 고되게 살아가는 민중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력과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더우기 언론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우리 국민의 의식 상태는 우물 안의 개구리격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반공적인 애국 인사들이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하며, 국내에서 정부 대변인은 한국에 인권 탄압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왜 있다고 하며,

국제 외교상 가장 긴밀한 우방인 미국과 일본마저 왜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까?

미국 검찰이 주미 한국 대사의 망명을 권고했고, 일본이 한일국교 정상화 후 한국에 77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끼쳤다는 사실을 이제는 정부쪽 사람들 입으로 스스로 발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사건 때의 성명서에서도 한국의 외교적 고립과 대외 예측 경제 문제가 고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실을 놓고서도 양심적 애국 인사들이 발설하면 죄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정부쪽 사람들이 발설하면 죄가 안되고 있는 실정은 한 마디로 이 땅에 "사회정의"가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고립과 심각한 낭패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강력 항의"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이라는 말은 한국안에서만 통하는 용어입니다. 모든 문제는 진실과 진리에 바탕을 두고 "대화"로써 대안을 찾는 데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우리 교회와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하며 국외적으로는 우방 국가들과 나아가서는 제3세계 국가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성공시키는 것은 다만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우리 교회는 공의회 문헌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 이 정신으로 우리는 이 사회에서 교회의 존재를 대중에게 계속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가 우리 현실 속의 모든 문제를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대중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국민이라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부조리한 현실을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비추어 부단히 쇠신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굳게 하면서 이 기도회 명칭을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회"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기도회는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개최될 것입니다.

1977. 5. 23

한국 정의 평화 위원회

(시)

성모의 밤

유 베드로



산들바람 불어오던 밤
달과 별의 빛은 누리에 차고
축광으로 침령을 밝혀
성모님을 찬미하던 밤
그 밤은 영원의 밤 평화의 밤
아베 아베 아베마리아

훈풍이 불어오던 밤
누갈다 산정에 당신을 모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호모하던 밤
우리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소서
그밤은 신비의 밤 영광의 밤
아베 아베 아베마리아

(劉鍾韶, 49세, 전주시 효자동)

□설계·감리·허가 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형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최선!!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 3-1449

☆새로나왔다! 삼화온수 보일러☆

☆특징—주물로 되어있으며 연탄가스에 강함
—열전 100% 효율, 99% A.L인코트
—국립공업 기능청 승인 242호

본사 직영 전북 총 판매점

부 활 상 회

대표 주 원 철(야고버)

□각 시군대리점 구함(각 가정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시공)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②2143)

□ 진복팔단 ① □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태오5, 9)

김 영 구 신부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는 단순히 옛-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의 마음 속의 평화, 믿는 사람의 평화, 모든 사람과의 평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고린토 후 5, 19)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로마 5, 1) 이것이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둘째는 우리 마음 속에 화평을 가르치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심은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을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믿는 형제간의 화평을 말하셨으니, “제단에 예물을 드려야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마태오 5, 23-24)고 가르칩니다.

네째는 에베소서 가르침과 같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주셨으니 그 불러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 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4, 1-3)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로마 12, 18)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화평하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하는 자가 되려면 위의 네가지를 다 실행해야 합니다. 산상설교가 가르치는 바 (마태오 5, 3-11)를 차근차근 실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편의 노래처럼 “이대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함께 사는 일!” (133, 1)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화평을 얻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화평한 가운데 사는 이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말로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우며, 불만하고, 하느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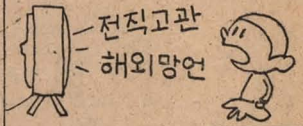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합니다. 모든 사람을 착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남이 좋게 되기를 원하고, 한사코 다른이름 헐뜯는 자에게까지 부드러운 말씨로 대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주린이를 따뜻히 먹이고, 헐벗은 이를 입혀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 17-18) -“위에서 내려 오는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은 평화롭고 겸손하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니다.”

* 신 간 안 내 * (바로로 서원 제공)

-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톨릭 문우회 편저, 900원)
- 공동체의 기도서 (윌리엄 G. 스토리 지음, 450원)
- 교리·전례 물어 해설 (가톨릭 출판사 편집부 편저, 1,300원)
- 공동 번역 성서 (신·구약 합본, 2,500원)

요심이 (202) 김병오



어?



당국이요? 앞으로 고관을 교육할때는...



재산을 해외에 배뿔리지않고 유사시 외국에 나가지않도록 하십시오!



이신경외과의원

전주시 전동 2가 125(구매구점)
전화 ②-9793
원장 이 종 두(헨리프)

금·은·보석 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구 태 양 사)
유 영 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각종 사진 출장

카메라 대여, 학교 앨범취급

중앙 사진관

한 원 규(야고보)
이리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7901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당)
전화 ② 1665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 울 태(베드로)
*육교연 중앙 시장통
(전화 ③ 4577)

* 많이 찾아 주세요 *

군산梨花치과 의원

박 안드레아(찬운)
☎ 8711(천일약국2층)

천일약국 2층 조화당

전화 국 국도국장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平協) 임시총회 (오늘 오전 10시, 교구청 회의실)
각 분당 사도회장과 교구단위 단체 대표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2. 전남북 성직자 친선 체육대회 (14일 <화> 10시, 광주 사레지오 남자교고)
3. 가톨릭 약사회 연수회 (15일 <수> -16일 <목> 오후 1시)
① 전라북도와 충남 금산에서 활동하시는 가톨릭 약사는 누구나 참여합니다
② 15일 오전 11시부터 접수함, 11시 40분까지 접수 완료 바람
4. 정의 평화미사 (21일 <화> 오후 8시, 복자성당)
5. 대구 연초 제조창 가톨릭 신우회원 45명, 숲정리와 누갈다 묘지 참배코 금 1봉 기탁
□ 금주의 방송안내 ① 문화방송...매일 밤 11시 25분 「별이 빛나는 밤에」 정승현 신부 방송
② 서해방송...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김 태운 신부 방송
□ 편집실에서 알립니다. 편집실 보관용 숲정이 정리 도중4-55, 65, 78, 93-96, 112, 113, 124, 126, 135, 141, 149, 178, 182-187, 189, 192, 193, 199호가 없기에 독자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주 시내 교우분들 중 특별히 모아 두지 않는 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울 목 보좌 신부 김 진 석 사도 회장 이 복 석

1. 꾸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강당
2. 애령회 임시총회 : 오늘 오전 10시 미사 후, 강당
3. 분당 주보출일 : 17일 <금> 분당 발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4. 혼인감좌 : 17일 <금> -19일 <일>, 밤 8시 반부터
※ 대상-만 20세 이상의 미혼 남녀
5. 도서 반납 요망 : 사도회 사무실에서, 정한 날에 꼭!
□ 축결혼! 신철우(아우구스띠노)군, 이 양남양 18일 <토> 12시
□ 지난주 봉헌금 : 107,075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박 종 용

1. 김충무(클레멘스) 신부님 오늘 미사의 강론 감사합니다
2. 신용조합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많은 참석바람
3. 젊은이들의 모임 : 오늘 밤 8시 반에, 소속 단체에 누계한, 18-30세의 남녀 청년들 빠짐없이 꼭!
4. 여러분들의 물심양면 협조를 기다립니다.
사제관 전립 목적으로 시공된 미완성 건물을 성프란 치스교회 명상의 집으로 목적 변경하여 내일(13일) 부터 공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 감사합니다(삼회 청년회를 통해서) : ① 이미카엘(중) 공소활동 위해 2천원(준 봉급) 회사
② 대전 신학대학에서 공소 신자용 교재 3권 기증
6. 성미운동 앞으로도 계속 많은 협조 바랍니다
7. 서로 인사 합니다 : 사도회 임원, 구역 회장, 반장님 들은 특히 새로운 신자들에게 친밀한 대화 갖도록 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4,82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보좌 신부 김 용 환 사도 회장

1. 미사시간 변경 : 19일부터, 공식미사-오전 9시 반, 매일 저녁미사-8시
2. 신축 위원회 모임 : 매주 <토> 7시
3. 어린이 교리는 2시, 미사는 3시에 있습니다
4. 새 성당 비품 수입 바람, 문의는 분당 사무실로
유옥순-성모상대 1점, 소병을-부활 촛대 1점, 신 동숙-제대포
5. 신축 헌금 : 전주제지 교우일동(10만), 이수남, 국철 환, 박귀봉, 송금자(각 1만), 이성환(1만5천), 방운 애, 김순학(각 5천), 이영덕, 권순희, 장쌍남(각 1천) 수입총계 6,576,000원
□ 지난주 봉헌금 : 70,34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조 성 호 사도 회장

1. 신자들의 기도 : 박연식, 염규철, 홍윤자, 최길술
2. 어린이 미사는 <일> 오후 4시, 교리는 <일> 오후 3시 10분 변경
3. 미사시간 안내 : 주일...오전 5시 반, 10시, 오후 4시 8시 평일...<월> 오전 10시-어머니 미사, <화> <목> <금> 오후 8시, <수> 오전 5시 반, <토> 오후 8시-주일 특전미사
※ 미사는 반드시 차기 분당에서 참례 할 것

4. 박아고버 탈상미사 : 15일 <수> 밤 8시, 중앙동 안젠 마(고려상회) 앞에서, 아침미사 없음
5. 예수 성심성월 동안 매주 <목> 미사 후, 성체강복
6. 성우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전종근 형제 덕에서
7. 매주 수요일 분당 사무 휴무, 아침미사만 있음
※ 하느님께 약속하신 봉헌금(교무금)은 6월 말일까지 완납하여 분당과 교구운영에 의무를 다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6,11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보좌 신부 박 장 준 사도 회장

1. 교무금 독려의 달! 교무금 완납하여 교회살림 돌보십시오
2. 신교주일에 : L·M 간부회의
3. 반상회 : 5만(14일), 6만(15일), 7만(16일), 8만(17일)
4. 행복한 가정운동 교육 : 19일(부녀주일) 10시 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31,970원 애령회비 : 4,731원

(숲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보좌 신부 전 종 근 사도 회장

1. 주님께 약속하신 의무금 미수액(76년 10월-77년 1월 분)을 주님께 바쳐 주세요
2. 전교 수녀님 가정방문 하시는데 도와 줍시다
3. 중·고 학생회 임원회 : 오늘 공식미사 후
4. 미사시간 변경 : <월·수·금> 아침 6시, <화·목·토> 8시, 주일-아침 6시, 10시, 밤 8시
□ 지난주 봉헌금 : 72,04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김 윤 섭 사도 회장 유 석 종

1. 자모회, 장우회 월례회 : 오늘
2. 성가정회 : 월요일 오후 2시
3. 푸른군단 가입(스카폴라 수여식) : 저녁미사 후
4. 독주의 기도 10만번중 88,438번
5. 신용조합 월례회 : 14일 <화> 저녁 8시 반
6. 사도회 의결사항 : ① 구 사무실 대어 ② 사도회 성가대 순교지 참배
□ 지난주 봉헌금 : 123,070원

※ 새 성당 신축헌금 : 전동 익명(80만), 부산상회, 김 세시리아(각 10만), 정정순(5만), 홍말구(4만5천), 최복금(1만) / 교동-익명(20만) 익명(50만), 이길섭(5만), 삼천리사제관(2만), 서복남, 김동민(각 1만), 김마리아(10돈), 조바라(반지3, 5돈), 강말가리다(목걸이 3돈), 양세시리아(반지 2돈) / 동안산동-강테레사(2만), 김안젤라, 김세시리아(각 1만) / 풍남-말가리다(30만, 반지 7.5돈), 한상호(20만), 한규화(15만), 김혜자, 김한숙, 강테레사(각 10만), 김안젤라, 서정숙, 정갈택(각 5만), 김정자(3만), 강수산나(1만) / 서안산동-전플로마(5만, 3.5돈), 윤영섭(5만), 서정수(1만) / 남노송동-김궁열(5만) 김희곤(1만) / 경원동-임안젤라(70만), 엄동규(10만) 박봉래(1만) / 신심단체-성서동지회(8만), 인자 하신 정녀(1만) / 기타-김신부, 이명자, 문수산나, 스타사장(각 10만), 김루시아(5만, 목걸이 2.5돈), 박베로니카(3만), 주계 : 4,655,000원, 금품 32돈, 누계 19,327,500원, 금품 75돈.